

제416회 국회  
(임시회)

# 정무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7월 25일(목)

장 소 정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병환) 인사청문요청안
-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병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업무현황보고(금융)
  - 금융위원회 소관
  - 금융감독원 소관
  - 예금보험공사 소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소관
  - 신용보증기금 소관
  - 한국산업은행 소관
  - 중소기업은행 소관
  - 서민금융진흥원 소관

## 상정된 안건

- 업무현황보고(금융) ..... 2
  - 금융위원회 소관
  - 금융감독원 소관
  - 예금보험공사 소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소관
  - 신용보증기금 소관
  - 한국산업은행 소관
  - 중소기업은행 소관
  - 서민금융진흥원 소관

(10시39분 개의)

○위원장 윤한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당초에 고지가 되었던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오늘 의사일정 제1·2항은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장으로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 3. 업무현황보고(금융)

- 가. 금융위원회 소관
- 나. 금융감독원 소관
- 다. 예금보험공사 소관
-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
- 마. 한국주택금융공사 소관
- 바. 신용보증기금 소관
- 사. 한국산업은행 소관
- 아. 중소기업은행 소관
- 자. 서민금융진흥원 소관

(10시40분)

○위원장 윤한홍 의사일정 제3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 9개 기관입니다.

자세한 기관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기관장 출석과 관련하여 금융위원장은 부기관장 대리 참석을 교섭단체 간사들 간 협의를 통해 양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소관기관 기관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존경하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2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의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국들의 금리인하 확산 등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 여건이 완만히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고금리와 고물가의 지속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 금융권 경쟁 촉진, 자본시장 선진화,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금융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면 이제부터 이와 관련한 주요 현안 추진상황에 대해 핵심과제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24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을 범위 내로 관리하고 DSR

내실화 등을 통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 빌리는 대출 관행을 확고하게 안착시키겠습니다. 부동산 PF는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부동산 PF 사업구조 개편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스스로 부실채권을 조속히 정리하고 필요한 자본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권 경쟁 촉진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금융산업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금융권 경쟁 촉진을 위해 대출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등 기존 금융회사 간 대출·예금금리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 신규 인터넷 전문은행 등 신규 경쟁자 진입을 촉진하겠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코리아 벤처업 지수 개발 및 ETF 출시, 우수 참여기업 표창 등 기업 벤처업 지원 노력을 지속하고 의무공개매수 제도화, M&A 제도개선 등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금융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 불공정 거래행위 엄정 조사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안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 기금 확대 등의 정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물경제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 등 정책금융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점 현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금융위원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권대영 사무처장입니다.

유영준 기획조정관입니다.

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입니다.

박민우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입니다.

김동환 구조개선정책관입니다.

안창국 금융산업국장입니다.

김기한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존경하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주요 협안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째, 금융 부문 주요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우선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서 합리적인 사업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부실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면서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과 질적 구조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H지수 ELS에 대한 신속한 현장 점검과 함께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하여 시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이 국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적극 개선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금감원 내에 별도 협의체를 설치하여 대응하는 등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와 피해구제 등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 불법 공매도 근절 등 금융시장 질서 확립입니다.

그간 투자자 불신을 야기해 온 불법 공매도와 관련하여 글로벌 IB들의 대규모 불법 행위를 적발한 바 있으며 불법 공매도 사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도 신속히 완료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판매경쟁 심화 등 단기실적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보험산업에 대해서는 금융위 등과 공동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최근 지속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관리책임 강화, 올바른 준법문화 조성 등 근본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책임 있는 혁신 지원입니다.

지난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사업자 규제이행 지원, 감독·조사 인프라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주요 사업자 검사와 자율규제 도입 지원 등을 통해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망 분리 등 보안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함께 금융회사의 자율보안체계 마련 등도 추진해서 디지털금융이 혁신성과 책임성을 균형화해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 안녕하십니까?

예금보험공사 사장 유재훈입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님과 정무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사의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는 1/4분기 높은 GDP 성장률과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회복을 보여 주었습니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실물경기 둔화 우려, 부동산 PF 등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금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8월 말 일몰 예정인 예보료율 한도의 기한 연장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 주요국은 선제적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것을 벤치마킹하여 금융안정계정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공사는 차등보험료율제도의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부합적 관리수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출자금융회사 매각과 파산재단 관리 등을 통해 지원자금의 회수를 강화하는 한편 자료요구 대상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추가하는 등 부실책임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21년 7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도입된 이래 그간 공사는 반환지원 대상금액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홍보 강화를 통하여 국민의 편익이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는 2024년 4월부터 금융감독원과 함께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검사와 리스크 요인의 적시 파악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라는 본연의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가 지금 컴퓨터에 다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권남주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2대 전반기 국회에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한덕규 실장입니다.

새출발인수운영처 양근영 처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약 54조 원의 부실채권을 인수·정리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고 또 다양한 신용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금융취약계층 약 293만 명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기업자산 인수, 취약기업 구조조정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와 재도약을 지원하고 정부로부터 국·공유재산의 관리·개발과 체납조세 정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연간 약 2조 8000억 원의 재정수입을 통해 공공자산의 가치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공적자산관리 전문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2년 출범한 새출발기금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부동산 PF발 금융리스크가 시장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고 제2금융권 연체율 급증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량의 부실채권을 단기간 내 신속히 인수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화 지원을 위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외환위기, 카드대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기 극복의 일선에 서며 축적된 모든 경험과 역량을 집중하여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산관리공사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업무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공사가 국민과 국회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 안녕하십니까?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원목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신용보증기금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회의장에 참석한 신용보증기금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부 김남수 본부장입니다.

신용보증부 정현호 본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저희 신용보증기금의 업무현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용보증기금은 1976년 설립 이후 지난 48년 동안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위기 극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짧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제성장을 지속 견인하기 위해서 총 보증 규모를 전년보다 4조 7000억 확대한 86조 3000억 원(일반보증 기준 61조 8000억

원) 수준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우선 수출기업, 창업기업, 신성장동력산업 등 중점 정책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우리 경제의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보증을 활성화하고 브라이머리 CBO 직접발행 등 유동화회사 보증제도를 개선하여 기업들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성장 단계별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는 기업인에 대하여는 맞춤형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한 팩토링제도의 규모를 확대하고 컨설팅, 경영진단 등 비금융서비스 부분도 적극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신용보증기금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기관 업무에 충실히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 안녕하십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최준우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22대 국회에서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의 주요 사업과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모기지 등 유동화 사업입니다.

2023년 한시적으로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종료하고 서민·실수요자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배려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시중은행에서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민간부문의 자체 장기·고정 금리 주택자금대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택보증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 구입 시 대출한도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특례구입자금 보증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한계사업장에 대해 추가보증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연금 사업입니다.

공사는 정부의 고령화 대책에 발맞춰 주택연금 이용자가 실버타운에 이주하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 주택가격을 2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취약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업무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금융공사 임직원 모두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여러 제언들을 경청하고 향후 공사의 경영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진 이사입니다.

이영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강석훈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은행 회장 강석훈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산업은행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산업은행은 대내외 산적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기 위해 첨단전략산업 지원, 국가기후금융은행 역할 수행, 지역성장 및 시장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첨단전략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18조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금융지원을 시작했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바이오 등을 포함한 대규모 지원방안인 대한민국 리바운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기후금융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며 KDB탄소스프레드 등 녹색금융 전용상품을 활용하여 2030년까지 154조 원의 녹색금융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남권 영업조직을 활용하여 전통 주력산업 영위 기업들의 녹색·디지털 전환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지원하는 한편 V:Launch, KDB NextOne 부산 등 지역특화 벤처플랫폼 운영과 직접투자 및 펀드 조성 등을 통한 지역 벤처생태계 기반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태영건설의 부실 정후를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신속한 워크아웃을 추진하여 부동산 PF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등 주요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정상화 발판 마련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업은행은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참석한 저희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부문의 이근환 부행장입니다.

종합기획부의 고병규 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중소기업은행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은행장 김성태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은행장 김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정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업은행은 지난 60여 년 동안 중소기업의 내실 있는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튼튼한 성장사다리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경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부동산발 금융리스크,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심화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금융안전판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가겠습니다.

금융비용 부담 완화 프로그램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프로그램 마련 등 중기 금융애로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수립·운용하여 상생금융 실천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축된 벤처투자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모험자본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고 벤처자회사 설립을 통한 창업초기 기업 투자 확대로 신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종합지원체계를 고도화하여 각 단계별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ESG 리딩뱅크 도약으로 고객 가치를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미래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교한 리스크 관리체계의 확립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책무구조도 도입 등 빈틈없는 내부 통제체계 마련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반듯한 금융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정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장 이재연 안녕하십니까?

서민금융진흥원장 이재연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2대 정무위원회에서 첫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심화된 서민들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작년 한 해 동안 서민·취약계층 105만 2000명에게 정책서민금융 7조 15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 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직접대출 상품인 소액생계비 대출을 통해 16만 5000명에게 95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여 133만 명의 가입 성과를 이루는 등 미래세대인 청년층의 안정적 자산 축적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취약계층의 위기 극복과 생활안정을 위해 총 5조 8800억 원의 정책서민금융 공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더불어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보다 근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단순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부처·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채무조정, 고용, 복지 연계 등 복합상담을 강화하여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고용, 복지 등 서민을 위한 모든 서비스를 한 번의 조회로 맞춤 안내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있다’를 지난 6월 출시하여 서민의 금융상품 선택권과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는 소액생계비 대출의 제도개선을 통해 서민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서민·취약계층분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권리자가 휴면예금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금융회사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원권리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성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배석한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사업본부 김진희 본부장입니다.

기획조정부 장지현 부장입니다.

(인사)

앞으로도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요구 한 1분만.....

○위원장 윤한홍 오늘 여러분들 아시지만 오후에 본회의가 있어서 시간이 없습니다.

○박상혁 위원 30초만 주세요.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30초만 드릴게요.

○박상혁 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 언론에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으로—신종 수법인데요—한 60억 원 이상 시세차익이 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산업은행과 관련되었다는 한국일보 보도였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아직 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산업은행에, 이 당시에

무슨 근거로 투자했는지 투자 한도라든지 투자대상, 이것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신청하신 분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5분씩 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꼭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빨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공정위원장한테도 좀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위메프·티몬 사태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안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언론의 관심도 크고 있습니다.

아마 티몬에서 상품권을 판매한 것 같은데 제휴처에서, 네이버페이라든지 구글에서 중단해 가지고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재현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할인 폭이 일반적인 상품권 할인보다 상당히 커 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 나오고 있고요. 티몬캐시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금감원장님, 이것 규모가 파악이 되었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 현장점검 인력을 내보내서 점검 중이고 또 오늘은 검사인력 한 6명 정도를 파견해서 검사반을 내보낸 상태라서 어느 정도 숫자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파악은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된 거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업체에서 저희에게 보고한 내용 등에 기초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검사라든가 현장점검의 내용은 그 숫자가 적정한지 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체성 등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티몬에서 판매된 상품권과 티몬캐시 규모 파악되는 대로 국회에도 빨리 보고를 요청드리고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또 한편으로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르면 선불 충전금은 별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별도 관리가 됐는지 확인이 됐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관련 법령은 이번 9월부터 시행 예정이기는 합니다만 그전에 저희가 지도 등의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가 그렇게 크게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 내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9월 시행 이전이라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고 별도의 돈통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얼마 정도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준비를, 점검을 해 왔다는 말씀이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또 한 가지 원장님, 큐텐에서 정산 지연이 한 1년여 전부터 있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사도 좀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 문제를 파악했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저희가 22년 6월부터 경영지도 등의 형태로 MOU를……

○**박상혁 위원** 22년 6월이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러니까 정산 지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거고 경영·재무 상황의 악화와 관련돼서는 22년 6월부터 저희가 관리를 해 오고 있었고 분기별로 관리를 했었고요. 다만 지금 문제되는 입점업체에 대한 정산 지연 문제들은 7월부터 구체적으로 관리했다고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올해 7월부터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기업 큐텐의 정산 지연은 한 1년여 전부터 이미 되고 있어서 그런 점검, 확인이 굉장히 늦고 시스템적으로 금감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어쨌든 상거래 업체 간의 협약 등에 따른 정산기간 연장 등은 아마 정상적으로 그 전에는 되었던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실제로 지금 얘기하는 어떤 협약이 없는 형태에서의 지연 형태는 7월부터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다만 검사 과정에서 혹시 저희가 파악한 부분에 부족함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리고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에서도 반기별로 자본의 적정성이나 자산의 건전성·유동성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데 이것 보고를 받으셨어요,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맞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데 전혀 이상 징후가 없었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2년 6월부터는 사실 이커머스 업계의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자본비율이 많이 나빠지고 유동성 이슈도 있어서 저희가 MOU 형태로 경영개선 협약을 맺어서 그것들을 관리해 오고 있다고, 방금 보고드린 그런 관리 현황입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면 그런 반기 보고서에 따라서 2022년 6월부터 MOU도 체결을 하고……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분기별 관리를 해 왔습니다.

○**박상혁 위원** 분기별 관리를 해 왔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 내용과 관련되어 가지고 반기별 업무보고서라든지 좀 전에 말씀하신 MOU라든지 이것을 의원실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김소영 부위원장님, 금융위 차원에서는 큐텐 측에 자구책을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금감원과 협력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예?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금감원과 협력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상혁 위원 아니, 자구책을 확인해 봤느냐고요, 큐텐 측에는.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자구책을……
-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확인은 저희가 직접 했고 금융위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 박상혁 위원 그러니까 금감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어요?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 박상혁 위원 지금 어떤 방법…… 시간이 없기는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합니까, 큐텐에서는?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저희가 그것을 지금 현재 밝히기는 좀 어렵고요.
- 박상혁 위원 왜 밝히기가 어려워요? 지금 시민들이 그리고 많은 판매업자들이 이것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저희가 조만간, 오늘 오후나 정제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혁 위원 그러면 오늘 오후 관계기관들이 종합대책을 발표하나요?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아니요, 오늘 오후가 될 수도 있고요 조만간 저희가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기재부 중심으로 차관급 회의를 오전 중에 진행 중이고 저희가 국민들이 아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최대한 빨리 국민들께도 알리고 국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상혁 위원 예,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장식 위원 금감원장님, 제가 김병환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주가조작, 일반적 패턴 설명 건너뛰고 그래프 보면요, 삼부 건데 전형적으로 저가 유지하다가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폭등하고 덩달아 주가 폭등, 거래량 폭등에는 분명히 통정매매 의심되고요. 단 두 달 사이에 쏟아진 호재들, 김건희 여사와 젤렌스카 여사의 만남, 추경호 당시 기재부장관의 서명, 원희룡 장관의 우크라이나 방문,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까지.

그런데 기업 공시자료 보시면 아시듯이 삼부토건은 해외사업 할 만한 회사가 아닌데도 이렇게 주가 부양이…… 해외사업 부문 청산 중인 회사잖아요. 해외사업을 이유로 주가

부양이 된 것 굉장히 이상합니다.

감독원장님, 이 삼부토건 추가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시고 사실관계 파악을 좀 하셨나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저희가 통상적인 시스템에 따라서 점검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장식 위원** 시스템에 따라서 점검된 내용이 있어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일종의 소위 테마주인데 삼부토건 이외에도 그즈음에 관련된 테마주 등이 상당히 한 두세 달 사이에 급등한 상황들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있는지를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통상적인 시스템에 따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장식 위원** 삼부토건도 포함이 돼 있느냐고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삼부토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미……

○**신장식 위원** 아니, 포함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통상적인 시스템에 따라 점검하는데 삼부토건 등을 포함한 다양한 테마주 등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신장식 위원** 삼부토건도 포함돼 있다는 거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신장식 위원** 그런데 김병환 위원장께서는 ‘시스템으로 발견되어야 한다’하면서 확답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본조사를 하더라도…… 기초조사를 해야지, 사전조사를 해야지 그 본조사의 필요성이 확인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그렇게 한 번 걸러지면 걸러진 것은 그다음에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일반적인 절차를 말씀……

○**신장식 위원** 예.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저희가 거래소 심리 분석이라든가 저희가 취득한 첨보 등에 따라서 실제로 본조사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필요성이 있으면 본조사에 착수……

○**신장식 위원** 본조사 필요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부토건? 시스템 안에서는 지금 대상이라면서요. 그러면 시스템 안에는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단순히 추가가 급등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저희가 조사 대상으로……

○**신장식 위원** 저게 단순해 보이세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런데 그 무렵에 추가가 오른 테마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의혹 제기만으로 저희가 조사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장식 위원** 저게 단순히 의혹 제기다? 그러면 시스템 안에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아니, 구체적으로 ‘저게’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을 지적하시는지 말씀을,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장식 위원** 시스템 안에는 삼부도 포함돼 있지만, 소위 시스템 안에는 포함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심리·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다? 현재 상황을 그냥

여쭙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구체적인 조사 착수 여부라든가 조사 착수를 위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장식 위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신장식 위원** 금융위에 자본시장조사단이 있지만 금감원도 증권 불공정거래 그다음에 주가조작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 있는 거지요, 지금?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물론이고 저희가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을 해 온 것들이 시장에서의 신뢰 회복을 위한 불공정거래 조사·검사입니다.

○**신장식 위원** 그러면 삼부토건 심리·조사하려면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심리·조사 등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서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금감원 안에? 시스템 안에는 들어와 있다면서요. 그다음 절차로 갈지 말지는 누가 판단합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지금 일반론을 계속 물으시면 일반론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

○**신장식 위원** 아니요, 삼부토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스템……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삼부토건 개별 건에 대해서 조사 여부라든가 조사 착수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린다고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신장식 위원** 말씀드리기 어렵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신장식 위원** 한번 확인하시고요. 나는 왜 말씀드리기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다만 주가가 단순 급등했다고 해서 모든 테마주를 다 조사할 수 없고……

○**신장식 위원** 주가가 저게 단순 급등으로 보이세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를 들자면 총선 등을 전후해서 정치 테마주들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저희가 조사하는 건 아닙니다.

○**신장식 위원** 않았지요. 이게 단순 급등으로 보이세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아마 그중에서 실제로 통정거래라든가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파악된 것들을 조사한다고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장식 위원** 구체적인 혐의사실은 누가 파악합니까? 지금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혹에 대해서 본인의 판단 내지는 파악을 하겠다 말겠다 이런 얘기는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조사 하실, 본조사나 그다음 시스템 바깥 본격적인 심리·조사로 넘어갈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절차라든가 기준의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신장식 위원** 절차와 기준만 가지고 일하세요? 아니, 시스템은……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절차와 기준대로 일을 해야지요.

○**신장식 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런데 시스템은 누군가 버튼을 눌러야 시스템이 동작하는 것이지 시스템이 자동으로 굴러갑니까? 시스템에는 의지가 없어요. 누가 버튼을 눌러요? 누르는 것 금융감독원장님 아니십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러니까 구체적인 혐의사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신장식 위원** 시스템 뒤로 다 숨고만 계세요, 김병환 위원장후보자도 그렇고.
  -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아닙니다. 저는 예를 들어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책임진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린 이상의 구체적인 협의점이 지금……
  -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해 주세요, 감독원장님.
  -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신장식 위원** 구체적인 협의점이 없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이상으로?
  -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해 주세요.
  - **신장식 위원** 하여튼 비겁해요.
- 

- **위원장 윤한홍** 이어서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위원**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먼저 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복현 감독원장님, 이번에 최근 두산그룹이 사업구조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것 알고 계시지요?

-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위원** 저 도표에 보면 두산에너빌리티를 인적분할한 후에 두산밥캣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신설법인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한 후에 또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를 포괄적 주식인수로 한 다음에 두산밥캣을 100% 자회사로 하고 상장폐지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주사인 두산은 두산밥캣에 대한 지배력이 13.8%에서 42%로 올라갑니다.

다음 표 한번 보여 주세요.

지금 두산밥캣은 저렇게 되면……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설명은 생략하고.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은 100주당 27만 1000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합병이 진행됐다는 것이지요. 이런 내용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최근에 이사들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계시지요?

-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위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개별적인 행위 규제 방식보다는 원칙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위원** 그러니까 저런 편법들이 가능한 것이 지금 현행법상에 상장회사들이 합병할 때는 단순히 주가로만 합병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것

을 본질가치로 바꿔야 되는 그런 법안도 제가 대표발의한 게 있습니다. 같이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런 편법을 쓰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두산밥캣의 최대주주인데, 그냥 팔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주주들의 피해를 선택한 그런 문제들입니다.

과거에 제일모직·삼성모직 합병 관련된 것 원장님께서 수사하고 기소하신 것 기억나시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과거에 담당한 바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런 것과 비슷한 것들이 아직도 저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 드립니다.

제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인청 때 이것 관련해서, 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내고 수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수리하게 되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제 금감원에서 두산에서 낸 증권신고서를 반려했습니다. 그렇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김현정 위원 그래서 그것은 우리 금융 당국이 대단히 잘한 조치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것들을 시의적절하게 계속해서 모니터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 좀 하겠습니다.

PT 좀 띄워 주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앞에서 신장식 위원께서 잠깐 질의하신 건데 삼부토건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추진 중인데 그 핵심은 자본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 확보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전에 얘기했던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고 주가조작을 근절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이제 들으셔 가지고?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 내용이 얼마나 엄중한 내용이냐 하면 일부 주가조작의 작전세력도 아니고 정부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또 연루됐다는 의혹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부의 이일준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인이고 김건희 여사의 돈 50억이 이 작전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의혹까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PT 한번 보시지요.

아까 신장식 위원님께서 죽 다 얘기했겠지만 지금 딱 보시면 23년 5월 14일 ‘멋진 해병’이라는 단톡방에서 임성근·이종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공범이라고 하는 이종호 씨의 ‘삼부 내일 체크하고’ 저 문자가 뜬 이후에 5월부터 7월 21일까지 그 3개월 동안에 전혀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주가조작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저렇게 딱 뜨거든요.

그다음 보시면 그 이전에 보면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간이 지금 없어 가지고요,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금감원에 특사경 있지

않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얼마 전에 카카오의 김범수 위원장도 구속시킨 그런 것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융경찰로서 기능을 잘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김현정 위원** 그 특사경에서 이런 주가조작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아까 이미 조사하셨다 그랬지요, 여기 들어가서.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김현정 위원** 이것은 사실 주가조작을 수사, 조사하는 것의 ABC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을 조사하신 다음에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한홍**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원칙에 따라 잘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예.

---

○**위원장 윤한홍**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해 주세요.

○**강명구 위원** 경북 구미시을 출신 강명구 위원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금융위가 지난해 6월에 청년들이 목돈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청년도약계좌 출시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강명구 위원** 현재 가입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130만 명 약간 넘는 상황입니다.

○**강명구 위원**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이 한 600만 명이면 그중에서 130만 명 가입했으면 청년 5명 중에 1명 정도가 지금 가입한 거네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1명 약간 더 넘게 가입했습니다.

○**강명구 위원** 청년도약계좌 관련한 구체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청년도약계좌가 며칠 전에 1주년 기념식을 한번 했었는데요. 사실 청년도약계좌가, 현재 청년들이 자산 형성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꼬박꼬박 저희가 돈을 저축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그 목돈을 사용해서 또 집도 살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고 창업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목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 130만 명이라는 숫자는 방금 말씀 주셨듯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5명 중에 1명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강조할 게 가입 해지율을 보시면 해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현재 계속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90% 정도인데 일반적인 적금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낮은 50%, 40%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목돈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강명구 위원**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주는 청년도약계좌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하여튼 청년들이 이 계좌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강명구 위원** 이 계좌를 유지하면서 차질 없이 자산을 늘려 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가 그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청년들한테 많은 의견을 받아서 점점 우리 도약계좌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명구 위원** 감사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월 22일 날 김병환 금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원장님, 청문회 보셨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강명구 위원**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께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역할이 엇박자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어요. 원장님, 얘기 들으셨나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강명구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어쨌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깊이 잘 새겨듣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새로 오시는 금융위원장님 잘 모시고 금융위 위원이 체계적으로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김병환 당시 후보자님도 말씀 중에 원장님과 관계를 잘 조율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원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강명구 위원** 제가 최근에 기사를 읽었는데 금감원의 2030 직원들이 많이 퇴사한다고 그래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많이……

○**강명구 위원** 2급, 3급 직원들도 많이 퇴사를 하면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입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그렇습니다.

○**강명구 위원** 통상적인 퇴사입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통상적인 추세보다는 조금 더 많이 퇴사를 하고 있고 퇴사 이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도 있지만 쳐우라든가 내지는 직무 과다 이런 것들 때문이라 저희가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명구 위원** 이렇게 퇴사 많이 하면 금감원이 수행하는 검사나 조사에 차질이…… 괜찮나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차질이 없도록 신규 인원을 계속 충원하고 있고 저희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통해서 잘 노력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강명구 위원** 최근에 티몬·위메프 사태도 터졌는데 그동안 금감원이 봤을 때 문제가

없었는지, 이것 조사할 인력은 충분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저희가 IT 관련된 인력 등은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충원을 해서 그것 때문에 티문이라든가 관련된 이슈 대응이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 악화 등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해 주세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티문이라든가 위메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맞고 저희가 그 것들을 경영지도 형태로 잘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조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덕 위원** 금감원장님, 오랜만입니다.

며칠 전에 인사청문회 보셨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민병덕 위원** 김병환 금융위원장후보는 삼부토건 모른다고 했는데 금감원장님은 아십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삼부토건, 그러니까……

○**민병덕 위원** 알고 계시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종목을 알고 있습니다.

○**민병덕 위원** 내용을 조금만 얘기하면 5월 22일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거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 2개월 사이에 5배로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5월 22일 날 급등하기 전에 쌈 가격에 5월 19일 날 거래량이 40배 늘어납니다. 알고 계시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언론에 보도된 내용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병덕 위원** 보도된 내용 알고 계시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민병덕 위원** 그런데 그전에 ‘멋진 해병’이라는 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가 있고 또 조사된 바에 따르면 그 몇 달 전에 승합차에서 공수처와 관련해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삼부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런데 5월 22일 날 폴란드에서 카이스트 공공조달연구센터가 행사를 주관했는데 거기에 갑자기 원희룡 장관은 초청도 받지 못했는데 삼부토건하고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며칠 전에 거래량이 40배 뛰고 나서 그다음에 보도가 나오—그 보도도 갑작스러운 보도가 난 거지요—그리고 나서 5배 주가가 뛰었고 그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

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항간에서는 이러저러한 소문들이 많은데 여기와 관련해서 김병환 후보자는 시스템으로 걸려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금감원에서는 걸려졌습니까, 안 걸려졌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런데 22일, 23일 날 폴란드에서 예를 들어 삼부토건 관련자가 참석해서 회의를 할 거면 이미 비행기표라도 하다못해 일주일 전에 예약을 했을 거고 그러면 삼부토건과 관련된 사람만 해도 최소한 수십 명 이상이 그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 그즈음에, 일주일 전에 주가가 움직인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는 일의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적인 측면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만 보더라도 있어 보이고 저희가……

○**민병덕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체크가 됐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체크하고 있고……

○**민병덕 위원** 체크된 바가 있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를 들어 거래소 심리 분석이라든가 관련된 다양한 급등……

○**민병덕 위원** 체크된 바가 있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체크하고 있고 체크된 바……

○**민병덕 위원** 특사경이 있잖아요. 특사경에서……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특사경은 시스템상 조사국에서 먼저 조사 내지는 조사……

○**민병덕 위원** 조사국에서 조사가 됐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 여부라든가 조사를 위한 사전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을……

○**민병덕 위원** 지금 이게 1년 전의 거잖아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맞습니다.

○**민병덕 위원** 23년 5월 달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5월 19일 날 거래량이 40배로 늘어나고 22일부터 급등해 가지고 5배 늘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조사 여부를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러니까 주가 급등……

○**민병덕 위원** 1년이 지났는데 그것을 감독하는 기관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파악을 해 왔고 하고 있고 다만 개별 건에 대한 조사 진행 여부라든가 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앞서 답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다만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삼부토건 이외에 수많은 관련 테마주들이 그즈음에 같이 올랐고 그리고 또 폴란드 행사에 참여한 기업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그 기업들이 다 같이 주가 급등을 한 것들은 저희가……

○**민병덕 위원** 그러면 폴란드에 참가해서 급등하기 전에 거래량이 40배 늘어난 게 있습니까? 다른 사안에서 거래량이 40배 늘어난 게 있어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다른 테마주들은 그만큼, 사실 더 많이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러면 그것 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거래, 주가가……

○민병덕 위원 잠깐만요. 다른 테마주가 그전에 40배 늘어났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없는데……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아니요, 이 테마주요. 우크라이나 개발 테마주 관련되어어서도 수십 배가 오른 다른 종목들이 또 있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병덕 위원 거래량이 40배 오른 게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못지않게 더 많이 오른 것도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민병덕 위원 그래서 그것을 파악했다는 얘기네요. 파악했는데 지금 1년 동안……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오른 것만으로도……

○민병덕 위원 그러면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 안 한 거예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사 연구라든가……

○민병덕 위원 뭘 말했다는 건지 모르겠네.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며칠 전에 거래량이 40배 늘어나고 갑자기 띄우고 5배 주가가 늘어난……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띄운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민병덕 위원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가를 정상적으로 만들겠다는 금융 당국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아니, 조사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왜냐하면 주가 급등주에 대해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고 잘 지켜보고 있고 그것들을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다만 그 모든 것들이 직접, 예를 들어 형사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는 조사에 다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의 기준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조사 할지 내지는 조사 착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병덕 위원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주가……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해 주세요, 민병덕 위원님.

○민병덕 위원 주식에 대해서 투자해도 되는 것 맞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위원장 윤한홍 민병덕 위원님!

○민병덕 위원 아니면 여기가 김건희……

○위원장 윤한홍 민병덕 위원님!

○민병덕 위원 관련돼 있으니까 안 하는 겁니까?

○위원장 윤한홍 똑같은……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 회복을 위한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나 금융위원장 다 취임한 이후에 제일 우선 과제로 해서 챙겨 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 것은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니까 금감원에서 잘 관리하도록 하세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이어서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섭 위원 도봉갑 국회의원 김재섭입니다.

저는 티몬 사태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금감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물론 이 티몬 사태라고 하는 것이 그 회사의 책임이 가장 크고 거기에 방만한 경영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금감원도 이 티몬 사태에 일정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2021년에 머지 사태가 있었고요. 그 머지 사태가 있는 이후에 금감원에서 직접 밝히기를 선불업 등록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하면서 ‘선불업권 사례를 파악해 점검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금감원의 책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머지포인트 사태가 한 1000억대 정도의 환불 중단 사태가 있었고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가 거의 머지 사태와 비슷하다는 측면에서 저는 2021년 금감원이 국민께 약속했던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데에서 비판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어쨌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부담을 드리고 걱정을 끼쳤던 것에 대해서 제가 당국을 대표해서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전자금융거래법이 9월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금감원이 법적으로 뭔가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다스리기는 어려운 상황임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지금 위메프나 티몬을 보게 되면 전자금융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금융업으로 등록이 되면 금융감독원 정보 포털 사이트에 버젓이 등록이 됩니다, 올라가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가 주어진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다가 문제가 된 티몬과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이미 자본잠식 우려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메프나 티몬 같은 경우에는 1세대 대표 이커머스 기업임을 생각해 보면, 시장에서 가진 위치와 지위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금감원이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다가 티몬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끊임없이 적자가 크게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해를 거듭하면서 더 커지고요. 2023년에는 감사보고서도 미제출했습니다.

저는 금감원이 훨씬 더 신중을 기하고 많은 관심을 기울였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사업을 하는 방식이 바로 이번에 문제가 된 선불충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둑어 두는 방식, 당연히 금감원이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이슈겠지요.

제다가 전금업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지금 티몬과 위메프가 하는 방식을 그런 식으로 운영되면 안 된다라고 했고 외부 기관에 신탁을 하라고 했는데 전혀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상테크라고 불리는 상품권을 통한 시세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그것을 조금 우회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각별하게 봤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금감원이 분명한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9월이 되면, 9월이 되기 이전까지라도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역할들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실태파악을 위한 검사반을 내보냈고 어쨌든 일단 책임 여하를 떠나서 피해 최소화 및 정상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정산 주기랑 대금을 보관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대기업 유통사 같은 경우에는 이 결제 대금을 40일 내지는 60일 사이에 결제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법상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지금 티몬이나 위메프가 돈을 묶어 두고 말 그대로 현금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들을 불려 나가는 방식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많은 현금을 보유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회사에는 이익을 얻어 가지만 소비자나 판매자들한테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여기는 법적인 미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도 이 결제 대금과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보름 안에 결제하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미리 금감원이 나서서 움직여 주셔야지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금감원이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비슷한 사태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도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자율협약 등으로 그 법 시행 전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챙겨 보고 그리고 위원님이 적절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 머지 사태 이후에 선불충전금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돼서 예치금 형태로 9월 전에라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정산 시기라든가 정산금 보관 방법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도 미비가 있어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보고 혹시 개선 방안이 있으면 국회에 의견을 드리고 그 전에라도 앞서 말씀드린 자율협약 형태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잘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위원** 청주시상당구 이강일 위원입니다.

도표 일단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금융위, PPT 보시면 저 PPT에 나타나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맞는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지금 코로나 시기 이후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회생법원을 통해서 받은 수치에 의하면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신청한 사람들이 증가 추세 정도가 아니라 폭증하는 수준입니다. 맞지요? 저 그래프 맞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강일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폐업자 수도 2023년에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아마 올해도 폐업자 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프가 나타내는 것이 서민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다라는 것들을 방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이강일 위원 그런데 시중은행의 이자 수익이나 순이익에 대한……  
데이터 넘겨 주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도에 국내 18개 은행의 이자 수익이 56조 원을 돌파했어요. 그다음에 순이익도 17조 원 돌파했습니다. 그중에 5대 시중은행 이자 수익이 역대 최대입니다. 41조 4000억 정도고요. 순이익도 14조 넘었습니다.

이것도 맞는 수치인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강일 위원 지금 서민경제 살리자 그래 가지고 아까 업무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대출 갈아타기 같은 것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출 갈아타기는 금융소비자인 서민들이 직접 자기가 은행을 알아보고 추진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 아니에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대출 갈아타기는 주로 그냥 앱 같은 데 가서 누르면 되고요. 아니면 서민금융……

○이강일 위원 그게 굉장히 쉬워 보이지요? 맨날 하시는 사람은 쉬워 보이는데 이 사람 저 사람들은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막 비교하려 다녀야 돼요. 누구한테도 막 물어보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서민들한테 가중되는 이런 시스템인데 사실은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 금융권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정책금융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이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좋지 않느냐……

자, 보세요. 서민경제는 계속 나날이 폭증적으로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은행은 이자가 폭증하고 있어요. 사상 유례없이 이자 수익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서민을 위해서 국가가 정책자금을 더 푸는데 왜 서민들은 계속 삶이 나아지지 않고 은행은 왜 이렇게 수익이 늘어나나요?

은행의 이익구조에 대한 이자 산정 내역을 공개하는 게 불가능합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은행 이자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줄이는 방법이나 어떻게 환원하는 방법은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내역을 공개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작년부터 안 그래도 이자 이익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지……

○이강일 위원 이자 부분에서, 특히 국가가 정책적으로 내리는 금융과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자 부분은 상당히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시중은행의 이자가 폭증한 건 당연하게 어떤 거냐면 서민금융에도 자기들의 마진을 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데 은행들이 거기다 이율, 거기다 자기들의 마진을 붙이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통상적인 금융보다 이건 좀 특수한 금융이기 때문에 이자를 붙여 나가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돼서 이러한 부분으로 이자를 감면하는 정책, 폭넓게 누구

한테나 다 적용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전반적으로 동의하는데 그 관련 방향에 관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노력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근거를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추가적인……

○이강일 위원 시간이 없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티몬·위메프 사건 좀 물을게요.

PPT 보실까요?

저 PPT는 뭐냐면 일명 폭탄 돌리기입니다. 리스크를 인지하신 소비자가 선수금처럼 받았던 걸 빨리 팔아 버리는 이런 형태가 지금 사이버에서 많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티몬과 위메프의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 일종의 폰지 사기하고도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돈을 다 당겨 써 버렸거든요.

금감원에 좀 물을게요.

현재까지 예상 피해 규모 어느 정도 파악이 됐나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나오는 대로 빨리 좀 주세요.

미상환 잔액 대비 자본비율 100분의 20 이상 유지해야 되는 것 아시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경영지표……

○이강일 위원 티몬·위메프 이 규정 지켰는지 점검하셨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점검했습니다.

○이강일 위원 아, 점검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온 겁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점검을 해서 사실은 재무비율이라든가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년 6월부터 경영개선 협약을 맺어 갖고 지속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강일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지금 이렇게 선수금 형태로 받아 쓰는 것에 대해서 예치금 형태로다가, 보험이라든가 예치금 가능 이런 기능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선불충전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법을 바꿔 주셔 갖고 저희가 예치금이라든가 소비자 보호 조치가 가능하고, 다만 입점 업체에 대해서 지급해야 될 정산금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장치가 없는 건 맞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강일 위원 그게 입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는 하는 거네요?

○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그렇습니다.

○ 이강일 위원 검토 내용 같이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해 주십시오.

○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실태파악을 한 다음에 제도개선 필요한 것까지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강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한홍 이어서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柳榮夏 위원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앞쪽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 대각선 쪽으로,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금융위원장후보자 청문회 때 위원장후보자께서 ‘집중해야 될 게 산업은행의 부산 본점 이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이전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작년 5월에 국토부에서 부산으로 공공기관 이전하는 고시는 됐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 한국산업은행회장 강석훈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가 국토균형발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지방이전 기관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걸로 행정적인 조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입법조치가 남아 있습니다.

○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지금 산업은행법은 본점은 서울특별시로 둔다고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 한국산업은행회장 강석훈 예.

○ 柳榮夏 위원 본점을 이전하려면 법 개정 사안인데 결국 국회가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이것 가정해서 질문드리겠지만 만약에 국회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본점 이전이 좀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혹시 대안을 갖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 한국산업은행회장 강석훈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죄송하게도 저희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을 일단 최선을 다해서 따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柳榮夏 위원 그리고 제가 파악해 보니까 노조에서 되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지금 본점에 근무하시는 인원이 한 1800명 정도 됩니까?

○ 한국산업은행회장 강석훈 한 1600명 정도 됩니다. 안전관리원 제외하고 1600명 정도 됩니다.

○ 柳榮夏 위원 일부 언론을 보니까 만약에 법 개정이 안 돼서 본점 이전이 안 될 경우에는 서울 본점에 최소 인력만 남겨 놓고 대부분의 인력을 부산 지점으로 옮겨서 부산 지점을 거의 본점화하겠다 이런 식의 언론보도가 있는데 혹시 그런 걸 검토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 한국산업은행회장 강석훈 그 부분은 저희가 본점 이전의 법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게 가능하냐라는 다양한 법적인 논란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쉽게 취할 수 있는 옵션은

아닙니다.

○**柳榮夏 위원** 지금 현재 부산금융센터 내에 만약에 본점이 이전되면 신사옥을 건립하려고 예정하고 있으시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강석훈** 예, 그것도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柳榮夏 위원** 아직까지 본점 이전에 대해서 공사 착공이나 그런 준비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강석훈**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柳榮夏 위원** 이것 하나만 답변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정부가 투자한 공공기관이 나중에 이익을 내면 정부에 배당금을 지불하는 게 있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강석훈**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산업은행이 지불한 배당금이 다른 공공기관보다 비율이 좀 높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노조나 다른 쪽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서는 ‘본점이 이전되면 당기 손실이 커질 거고 또 경제 유발 효과도 정부 측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줄어들…… 생각보다 크다.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 산업은행에서 정부에 주는 배당금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강석훈** 산업은행이 부산 이전이 되는 경우 기존에 하던 활동을 하지 않고 부산으로 가서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활동에 더해서 지역균형발전과 성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논리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柳榮夏 위원** 하여튼 국회나 노조를 좀 설득하셔서, 아무래도 지역균형발전이 국정과제 아니겠습니까?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강석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금감원장님 나와 계시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柳榮夏 위원**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때 ‘금감위와 금감원이 좀 엇박자를 낸다’ 이런 우려를 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듣기에 지난 2년 동안 금융위는 보이지 않고 금감원만 보였다는 여론이 시중에 좀 있었습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아까 동료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주셔서 그 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금융위가 금감원이 월권을 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제재하는 규정이 금융위법에는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통괄적인 지도 감독의 권한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정계요구권이나 이런 게 없는 것은, 법에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다만 규정 여부를 떠나서 저희가 금융위 설치법 정신에 비추어서 금융위의 관리 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될 것들은 의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포괄적인 관리 감독은 있지요. 하여튼 유념하셔서 더 이상 우려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표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면)

보험 사기 대출, 그러니까 보험 대출업자들의 보험 사기 적발 건수가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실효성이 없다는 게 저 연루자들이 나중에 제재 처분을 받게 되면 형이 확정되더라도 청문 절차, 행정 제재를 거쳐서 나중에, 언론을 보니까 10년 뒤에 제재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걸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결국은 청문 절차와 행정 제재를 줄여 버리면 좀 단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거기에 대한 복안 같은 걸 갖고 계십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저희도 사실은 다른 어떤 전문직업군과 마찬가지로 형사와 관련된 법령 위반으로 인한 형사 절차 확정 이후에는 3년이 됐건 몇 년이 됐건 아예 그냥 자격 정지 기한을 두는 이런 형태가 조금 더 실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21대 국회에도 정무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혹여 그 취지에 공감을 해 주신다면 이번에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柳榮夏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수 위원 인천 계양갑 출신 유동수입니다.

부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들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이 23년도 말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잘 모릅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제가 액수 자체는 안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2019년도 대비 몇 배 정도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없는데 상당히 많은 배수로……

○유동수 위원 ‘상당히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 금융시장을 전혀 파악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19년 액수라 이게……

○유동수 위원 감독원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는데 거의 한 10배 이상 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2019년 대비로 거의 한 5배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 10년 동안 대비로 보면 한 20배 정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그렇게……

○유동수 위원 왜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한 가지는 국내 증시에 대한 불신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사실은 저희가……

○유동수 위원 우리나라 국민들이 눈을 떴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제가 한마디 추가드리면, 사실은 그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동수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다른 겁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죄송합니다.

글로벌화 진행 과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금융 글로벌화……

○유동수 위원 그렇게 편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유동수 위원 그렇게 편하게 보시면 안 된다고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아니,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동수 위원 그런 원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국내적 요인에서 찾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아니요, 저희가……

○유동수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컨트롤 가능한 부분을 우리가 하는 게 일이에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아니,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동수 위원 다음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10년간 우리나라 주식 증가율이 61이고요. 니케이가 297이고 미국이 271입니다.

원장님 같으면 어디에 투자하겠어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저는 수익이 높은 데에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유동수 위원 가겠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유동수 위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볼래요?

그다음 것 띄워 주세요.

이렇다 보니까 10년 전에, 2004년도에는 글로벌 이머징 마켓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17%이고 대만이 12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인이었고 대만의 주식을 상황에 따라 주고받으면서 보조적으로 대만 시장을 이용했습니다, 해외 펀드 매니저들이.

그런데 지금 대만이 19고 우리가 13입니다. 그리고 대만이 핵스된 시장이 되고 우리는 서브 마켓 된 거예요, 이머징 마켓 시장에서, 해외 투자자를 입장에서, 기관 투자자를 입장에서.

이게 1%가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모르지요? 100조입니다.

그다음 볼래요?

그다음 띄워 주세요, 주주 환원율.

보시면 2013년부터 22년까지 미국은 배당성향을 포함한 주주 환원율이 92입니다. 우리가 29입니다.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MSCI 월드 인덱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제도 바꿨지요? 제도 개선했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유동수 위원 부위원장님 알고 계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WGBI는 가능합니까? WGBI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WGBI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동수 위원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이번 9월 그리고 내년 3월이 있는데……

○유동수 위원 그러니까 WGBI는 내가 좀 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하여튼 저희가 힘을 모아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하고 있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유동수 위원 그런데 해외 투자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이런 얘기 합니다. 소통 강화만으로도 자기들이 벤류를, 투자를 굉장히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외 투자자들하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래 지침의 투명성이 별로 없다. 거래 지침을 하려면 사전에 해외 투자자들하고 많은 교감을 통해서 불편해하는 것들을 해소해야 돼요.

이번에 옴니버스 계좌, 폐지했잖아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유동수 위원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들한테 먼저 소통해 봤으면 이런 제도 만들 필요도 없는데 만들고 나서 이용 안 하니까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거래 지침을 발표하거나 제도를 변경할 때 너무 터프하다 그거예요. 사전적으로 교감을 통해서, 충분히 교감해서 거기서 불편해하는 사항들을 해결해 줘야지 이렇게 선진 주가지수에도 편입이 가능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WGBI에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해 보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자본시장 선진화는 이미 2년 이상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저희 해외 투자자랑 상당히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화 관련해서 그다음 벤류업 관련해서 소통을, 개인적으로도 IR을 상당히, 10번 이상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해외 투자자들이 저희 오피스로 찾아오는 경우……

○유동수 위원 브로커를 말고, 해외 브로커를 말고 직접 투자자들,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서 많이 소통을 하세요, 앞으로.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보다 못 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해외 투자자들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개선한 측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헌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민 위원** 시작하기 전에 강석훈 산업은행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시지요. 먼저 금융감독원장님께 질문드리고 바로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님, 지금 위원님들 몇 분이……

자료 먼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님들이 계속 삼부토건 한번 들여다보고 조사를 해 달라 그다음에 그 상황들을 보고해 달라 말씀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옆에 보면 한국가스공사 추가 변동도 비슷한 흐름이 보여지고요.

원장님이 이야기하는 테마주나 아니면 추가 급등주에 관련해서는 시스템 안에서 걸려 진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가지고 심리조사부터 본조사로 이어진다고 했는데 이 2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 맞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어쨌든 추가 급등만으로 조사를 한다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지만 그래도 급등주가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성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 체계에서 그것들을 보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 감시체계를 잘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김병환 금융위원장후보자께서도 이 관련된 것을 들여다보고 조사를 하시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의혹이 있는 부분이고 관련돼서 신뢰성과 추가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고.

지금 금감원장님도 관련돼서, 사실은 특이한 상황은 맞잖아요. 그다음에 의혹들도 어느 정도,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 정도는 당연히 들여다봐야 된다.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는 확인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이 오르는 이유 내지는 관련된 정보가 유통되는 방식들이 위낙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한창민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충분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점이 보이고……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잘 유념해서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님.

○**한창민 위원**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챙겨 봐 주시고 그다음에 다음에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은행장님,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 말이 많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강석훈** 예,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한창민 위원** 그런데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 강석훈 회장님의 너무 과감하게 밀어붙이시는 것 같아요.

하나만 짚겠습니다.

취임하자마자, 2022년 11월 29일 날 조직개편 하셨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강석훈 예, 그렇습니다.

○한창민 위원 조직의 일부를 부산으로 내려보냈는데 지역성장지원실하고 동남권투자금융센터입니다. 산업은행 내부 직제상 본점입니까, 지점입니까, 이 기관들이, 조직들이?

○한국산업은행회장 강석훈 그때는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한창민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규정상 이거 본점에 소속되는 게 맞습니까, 지점이 맞습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강석훈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한창민 위원 다른 말씀 하시지 마시고 규정에 맞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것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한국산업은행회장 강석훈 내려간 거는 규정에 맞는다고 다 확인받고 내려보냈습니다.

○한창민 위원 규정에 안 맞는 게 오히려 통상적이고 옳은 의견인 것 같은데요. 본점이 서울에 있고 해양 관련된 지점이 부산에 있는 건데 본점에 소속돼 있는 조직들을 무리하게 내려보냈다 이런 비판들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부산 이전을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국토균형발전을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있고 나서 무리하게 진행된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강석훈 한편으로는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남권 지역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든다는 국정과제에 따라서 저희 산하 금융공공기관은 그 국정과제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창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힘들기 때문에 노조나 다양한 의견들이 부딪히는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은법 개정 전에 부산 이전 효과를 내겠다, 작년 6월 12일 취임 2주년에 말씀하셨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강석훈 예.

○한창민 위원 왜 이렇게 무리하고 부당한 말씀을 하십니까? 법적으로 그다음에 국회에서 그다음에 관계자들의 논의, 철저한 계획과 합리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내고 진행돼야 될 중요한 사안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한국산업은행회장 강석훈 그거는 저는……

○한창민 위원 아니, 은행장님이 무엇이길래 조직개편이나 법적인 제도 개선이 있기 전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노조나 다양한 비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이행 때문에 그런다라는 의심이 많은데 그거하고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국산업은행회장 강석훈 부산 지점의 영업점을 강화하는 것과 본점 이전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창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보기 힘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리하게 진행돼서 노조 반발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인식하지 않게, 철저하게 저희들도 검증할 테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 말아 달라, 당사자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절차와 과정을 지켜라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문 위원 이복현 원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이미 언급이 있으셨지만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터진 게 아닌지 국민들의 우려가 지금 크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시스템 오류를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판매자들의 대금 지급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에게 환불 조치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 있으셨지만 과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금감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어쨌든 저희도 사안의 염중함에 대해서 매우 깊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총력을 집중해서,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피해 확산 방지라는 가 확보된 유동성에 기초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최대한 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최악의 경우에 티몬이나 위메프가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수천억에서 조 단위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선불충전금과 각종 상품권에 대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 머지포인트 사태 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여야 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도 포함이 돼 있는데 마침 올 9월 시행을 앞두고 이렇게 또 많은 피해자들이 생길까 봐 지금 많은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티몬의 경우 10억 원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을 해 놨고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약 5억 6000만 원의 선불충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시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하지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도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들의 거래대금이나 선불충전 외 수단으로 결제한 고객들의 비용,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지 정말 깜깜한 상황인데요.

원장님, 지난 2022년도 말에 금감원에서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저희가 머지 사태 이후에 여러 차례 관련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래서 그 당시 조사 결과, 전체 412개 대상 중에서 56개 전자금융업자가 감독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쳤던 것으로 그 당시 발표가 됐습니다. 당시 보니까 티몬과 위메프 둘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당시 이와 같은 조사에 대해서 후속조치까지 혹시 금감원에서 쟁진 바 있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저희가 재무상황 개선을 위한 재무개선 협약을 체결해서 사실은 CEO 면담이라든가 그 이후에 예를 들어 비용 절감 이런 노력들을 회사 측에 많이

권유를 하고 그에 따라 회사가 노력한 바도 있습니다만 위낙 산업환경 변화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혹시 소비자 보호 등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검사 등을 통해서 잘챙겨 보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렇지만 만약 티몬·위메프에서 책임이행보험에 이와 관련해서 가입을 했다고 해도 감독 규정상 전자금융업자는 최소 가입 금액이 2억 원으로 사실 터무니없이 지금 작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건 맞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래서 피해 추정 규모에는 아마 한참 못 미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금감원에도 이런 내용의 민원이 아마 지금 많이 접수되고 있을 텐데 티몬이나 위메프가 가입해 놓은 다른 보장책, 보험이 있는지 또 보장받을 방법이 있는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금감원이 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도 동의하시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역량을 동원해서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님, 국내 이커머스 시장 결제 규모가 지금 날로 커지고 있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이정문 위원** 가장 규모가 큰 쿠팡이 올 2분기에 8조 6000억 원의 결제 금액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자금융감독 규정의 책임이행보험 최소 가입 금액이 시장 규모를 너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그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래서 아래서는 제대로 된 이용자 보호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2013년도 12월에 마지막으로 이 금액이 개정됐던데 현재 시장 상황에 맞춰서 최소 금액 상향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저는 우리나라 금융 당국이 사건 사고가 터지면 뒤늦게 수습하기보다는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사안도 저희가 규제 사각지대를 만들려고, 법을 만들었지만 사실 또 시행도 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입법부라든지 금융 당국에 대한 또 금융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금융위나 금감원 또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두 분 다 동의하시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이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근 위원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위원입니다.

자료 9쪽을 좀 보여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면)

금융감독원장님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기업 벤류업 정책 잘 아시지요?

○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남근 위원 지금 우리 기업 벤류업 정책도 일본의 기업 벤류업 정책들, 자본시장 벤류업 정책들을 어느 정도 벤치마킹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남근 위원 일본의 자본시장 벤류업 정책에서는 상속세 감면, 금투세 폐지 이런 식의 세금 감면 정책이, 그런 내용들은 없지요?

○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일본은 사실 세법을 쉽게 바꾸지 않는 그런 어떤 입법적 관행이나 특성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 김남근 위원 아니, 그래서 일본은 그런 식의 기업 벤류업 정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결과는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 김남근 위원 다음 쪽, 좀 넘겨 주시지요.

10쪽 보면, 주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거버넌스 개혁이었어요.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라든가 그런 거버넌스 고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같은 거 만들었는데……

그다음 쪽 보여 주시면, 거기서 보게 되면 이사회 역할 강화라든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강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영 임원들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사회에 최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 이사들을 3분의 1 이상 선임해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 만들고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 같은 것도 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수행을 했었지요.

○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지배구조에 대한……

○ 김남근 위원 또 상당히 성과가 있어서 많은 기업들의 이사회가 그런 독립적인 이사들로 구성되도록 이렇게 바뀐 것도 사실이지요?

○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남근 위원 그다음 장 보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올해 2월 달까지는, 최상록 기재부장관 발언도 보게 되면 일본식으로 투자자들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판단 시 적극 활용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행동지침에 반영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었지요?

○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 김남근 위원 이때까지는 금투세 폐지, 상속세 감면을 자본시장 벤류업 정책과 연계시키고 있지는 않았어요. 맞지요?

○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투세는 약간 그거랑 궤가 다른 것 같고 상속세는 아마 연결

되는, 그렇게……

○**김남근 위원** 별개잖아요. 그렇지요? 그때도 상속세 감면이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과 연계되지 않았어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투세는 그전부터도 저희가……

○**김남근 위원** 충선 전후로 해 가지고 상속세 감면이랑 금투세를 연계시키는 그런 것이 나온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제가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투세는 사실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조금 문제 제기를 해 왔던 건 맞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저희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관련해서 세제정책도……

○**김남근 위원** 감독원장한테 묻고 있으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죄송합니다.

○**김남근 위원** 끼어들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13쪽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장님께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신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배구조 마련돼야 된다 이런 얘기하신 것들도 있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모든 주주가 기업 성과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자본시장 밸류업과 관련해서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하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하신 적이 있었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맞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리고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내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런 얘기도 하신 적이 있는데 준비들은 하고 계신 건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게 구체적으로 상법 개정의 방식이건 내지는 상장기업 특례 방식이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다만 부총리나……

○**김남근 위원** 방법론은 상법 개정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상법 개정으로 하게 되면 법사위 이런 데서 충분히 논의 안 되니까 정무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법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본시장법 안에다가 이런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특례조항 같은 걸 넣을 수도 있고 그런 방법론은 있지만 이런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은 지금도 계속 유효하신 거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정부 출범 이후부터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건 맞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 입법과제를 빨리 정부안으로 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논쟁만 많이 되고 진척이 없잖아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지금 정부 내에서 사실은 겉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되게 활발히 부처 간에 논의……

○**김남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겉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을 추진하겠다 얘기를 해야지 이게 논의가 좀 활성화가 되지.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래서 제가 사실 곁으로는 기회가 될 때 자주 많이 말씀은 드리는데 다만 정부 내의 협의 과정이 숙성이 되기 전에 말씀드릴 경우에는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어서……

○**김남근 위원** 저도 그런 입법안을 발의하고 그럴 예정인데, 정부가 액션을 안 취하니까 자꾸 법안을 내려고 그러는데 이것 굉장히 전문적인 것이어서 가능하면 정부가 잘 정돈된 입법안을 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다음 장, 넘겨 주시지요.

마지막으로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 중에 신탁사기 피해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 잘 알고 계시지요? 범정부 차원에서 이 전세사기 피해자들 구제하는 것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탁회사들이 최근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쫓아내는 인도소송들을 전면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 알고 있어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김남근 위원** 한번 신탁회사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범정부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 구제한다고 그리고 있는데 금융기관들이, 신탁회사도 금융기관이잖아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맞습니다.

○**김남근 위원** 금융기관들이 앞장서 가지고 전세사기 피해자들 쫓아내고 이런 것 하게 되면 사회적 논란이 엄청 많아질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특별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준호 위원** 발언 시작하기 전에 강석훈 회장님 발언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회장님, 산업은행이 도이치모터스의 새로운 추가조작 의혹에 개입된 것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한국산업은행회장 강석훈** 그런 보도가 나왔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천준호 위원** 보도에 따르면 2011년 12월 19일 도이치모터스가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50억 원을 발행했고요. 그날 산업은행이 이 채권을 바로 인수합니다. 산업은행으로서는 도이치모터스에 250억을 빌려 주고 3년 만기에 3% 이자였고요. 250억 원어치의 신주를 5560원에 살 권한도 같이 받게 된 이런 투자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산업은행은 다음 날인 2011년 12월 20일 BW 발행 주관사인 KB투자증권을 통해서 신주인수권 150억 규모를 되팔았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되팔았느냐하면 바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 추가조작 사건의 공범 중의 한 분이신데요 이분한테 되팔았고 이분은 신주인수권을 매입했는데 그 매입비용이 7억 50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그중에서 5억 원을 김건희 여사로부터 빌렸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감원 조사보고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사실관계는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산업은행이 권오수 씨에게 신주인수권을 되판 가격이 통상적으로는 이론가격, 공시된 이론가격보다 터무니없이 찐 가격으로 되팔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주인수권 이론가격은 주당 1126원인데 한 5분의 1 가격인 주당 278원에 처분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2월에는 나머지, 앞에 150억 규모의 신주인수권을 권오수 씨한테 판 거고요 그다음에 남은 100억 규모의 신주인수권과 관련해서는 도이치모터스의 또 다른 주요 주주인 이승근 씨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176원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산업은행이 왜 이 250억 원을 투자했는지 그리고 헐값에 매각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산업은행 측 답변, 변명은 이렇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매매 과정에 대한 나름대로 변명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요, 이게 사실 상당히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은 매매 과정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투자를 해 왔다. 일상적인 투자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관련 자료를 공개해 주시면 훨씬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강석훈**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고받은 내용이랑 좀 다른 상이한 면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50억을 AS센터를 짓는다 그래서 대출을 해 주고 그것을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250억 원이고요. 저희가 그것을 다음 날 150억 원어치를 말씀하신 권오수 회장한테 판 것이 아니고 KB증권한테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천준호 위원** 통해서 권오수 씨한테 간 거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강석훈** 저희가 KB증권한테 판 그게 권오수 씨한테 2차로 간지는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고요.

○**천준호 위원** 예, 아까 저도 그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강석훈** 두 번째, 그리고 그 당시에 가격이 1100원 정도 하는, 1만 원 기준 1100원 정도 하는 당시 법령에 의해서 발행자가 산정한 이론가가 있었고요. 저희 은행에서는……

○**천준호 위원** 평가액으로 구매하셨다 이런 설명은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말로만 하시니까 관련 자료들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셔야만 그 말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겁니다.

자료 제공하실 수 있습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강석훈** 당연하지요.

○**천준호 위원** 그러면 바로 자료를 좀, 그것 관련된 근거가 담겨져 있는 자료를 저희 의원실로 꼭 좀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강석훈** 다시 한번 말씀 더 드리면, 저희가 당시 저희 은행의 내규대로 공정한 평가를 받아서……

○**천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권오수, 이승근한테 훌러 들어간 이 신주인수권이 최종적으로는 김건희 여사도

거치고 블랙펄인베스트먼트의 임직원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타이코사모펀드로 다 모입니다. 그리고 타이코사모펀드가 그것을 매각해서 50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데요. 이 타이코사모펀드의 구성을 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감원장님. 어떤 분들이 구성하고 있는 건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료가 있지요, 금감원에?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한번 점검을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준호 위원** 꼭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자료는 제가 보기에는 타이코사모펀드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인 것 같습니다. 그 자료 꼭 좀 공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위원** 충남 아산을 강훈식입니다.

저는 오늘 금감원하고 금융위한테 ETF 판매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국내 ETF 순자산 총합이 154조가 됐더라고요. 작년 6월에 저희가 100조였는데 1년 만에 한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이제 일반투자자들이 이 ETF 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또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커져 가는 게 상식적인 판단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저는 여기 숨은 조력자들이 있어서 이 숨은 조력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금감원에는 검사 내지는 이것에 대해서 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금융위에는 정책적 대책에 대해서 요청을 드릴 생각이에요.

그 숨은 조력자 첫 번째는 대형 자산운용사의 같은 금융그룹 내에 있는 계열사들입니다.

삼성자산운용의 ETF를 삼성생명이 사들이는 식으로 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보면 삼성자산운용의 대표 금리인 ETF가 코덱스 코퍼하고 코덱스 CD인데요, 이게 유동성 공급자 물량을 제외하고 삼성금융 계열사가 출자한 금액이 이 중에서 한 1조 5000억이 좀 넘습니다. 6000억 가까이 되는데요. 이 두 ETF의 순자산 총액의 15%가 계열사에서 다 나왔다는 겁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도 계열사 도움은 있었습니다만 규모가 이 정도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보험사 변액보험까지 추가하면 수조 원까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계열 운용사 ETF 금융상품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혹시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는지 또 나아가서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금감원에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하고요.

두 번째 조력자는 저는 증권사라고 봅니다.

자산운용사가 공생관계인 증권사들에게 혜택을 주고 증권사는 그 대가로 자산운용사의 ETF를 매수하는 사례,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증권사는 주식 매매 수수료 챙겨서 좋고

그다음에 자산운용사는 순자산 총액을 불려서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시겠습니까만 ETF 상장 기준이 순자산 총액이 70억 이상 돼야 되니까 새로운 ETF 출시할 때는 물량을 그 이상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P로 참여하지 않으면 자산운용사가 해당 증권사에 다시 주문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권사 유동자금이 특정 회사로 쏠리면 그 외의 자산운용사는 신규 ETF를 만들 여력이 없어지고 결국 피해자는 일반투자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금감원장께서 자산운용사가 합리적 기준 없이 펀드의 매매주문 처리할 수 있는 투자중개업자 선정하는 행위에 있어서 계열사 몰아주기와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금감원의 감독규정상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은 은행입니다, ETF의 조력자가.

아시겠습니까만 우리가 2012년에 계열 운용사 펀드 판매액을 절반 이하로 했다가 2022년에는 25%까지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강훈식 위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그룹 계열사의 운용사 펀드만 팔지 말고 다른 것도 다 팔아라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사실 좀 애로사항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플리케이션으로 매매하고 들어오고 이렇게 때문에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인데요. 2012년부터 22년까지 여덟 차례 점검을 했는데 우리가 25% 률을 22년에 만들어서 제도권 안에 들어왔다고 판단된 이후에는…… 2020년, 21년, 23년 점검을 안 했습니다, 여덟 차례 점검하는 지난 11년간. 금감원이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올해는 계획이 없어요, 참고로. 물론 이게 25% 률이 강화되면서 제도권 안에 들어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는 금감원에서는 ETF 시장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점검과 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금융위 부위원장께서는 은행 창구에서 규제를 회피해서 ETF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해서, 늘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이런 부분의 규제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저희 위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 그냥 짤막하게 이것에 대해서 실천 여부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불건전 영업행위 등과 관련돼서 말씀하신 대로 빨리 실태 점검 및 필요 시 검사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실히 최근에 너무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그 과정에 저희가 예측 못 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래 위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

먼저 금융감독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들이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질의가 좀 있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도대체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당국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해야 될 게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동시에 진행하셔야 될 게 피해는 현재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피해를 차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조승래 위원 그다음에 그 피해를 복구하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선불충전금과 관련된 소비자 보호 이슈는 상대적으로 저희가 잘 챙겨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그래도 걱정이 좀 덜 되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그게 상품권이 됐건 내지는 거래와 관련된 정산 주기라든가 정산금 지급 문제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조승래 위원 그러니까 파악은 하고 계시다는 거고.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조승래 위원 파악이 잘 안 되신 거네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아니, 파악은 돼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면 이런 이런 근본적인 원인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라고 그냥 단답형으로 답변하시면 되는데 길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원인이 두 가지라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승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 중이다,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파악은 돼 있는데 저희가 공개된 자리에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조금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승래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적절한 방식으로 의원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단 조치는 하고 있는 겁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현장에 7명 내외의 검사팀을 보내서 지금 어쨌든 자금 유용이라든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어제저녁, 오늘 오전에 보도가 막 쏟아지고 있는 내용 중에서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결제 대행업체들이 결제 취소하고 신규 결제를 다 막아

버리니까 들어가서 클릭해 가지고 결제 취소를 해야 되는데 결제창을 막아 버리니까 그걸 들어갈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업체에서 직접 계좌이체로 소비자들에게 환불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웃지도 못할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환불 이슈를 정말 소비자들이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서 조치를 빨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것하고 관련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리고 제도개선 문제는 차차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조승래 위원 그다음에 산업은행 회장님, 잠깐 좀……

아까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 근본적인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셔서 관련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지난번에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산업은행에서 벤처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강석훈 예, 그렇습니다.

○조승래 위원 자료 좀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그런데 문제는, 저것 한번 통계를 봐 주십시오. 저기서 빠진 것까지 포함해서 산업은행이 최근 5년간 2조 2000억을 투자했는데 그중에서 1조 3000억을 서울에 또 경기도, 인천까지 다 합치면 1조 9000억.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하면 수도권에 87.3%를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23년도에는 저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강원도 경남 광주 울산 전남 전북 이 9개 시도에는 1원도 투자하지 않았다라는 게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거든요. 맞습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강석훈 뒷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만 위원님의 수집한 정보가 맞지 않겠습니까?

○조승래 위원 아니, 그러면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해야 균형발전이 되고…… 아니, 지금 할 수 있는 건데 왜 안 하고 계십니까? 균형발전의 가장 핵심은 공공기관 등의 이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에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게 가장 큰일이에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장님 계시지요?

○중소기업은행장 김성태 예.

○조승래 위원 기업은행은 조금 낫더라고요.

그래서 본점 이전하나 마나 이런 문제는 차분히 논의를 해 나가면 되니까요 그것은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우선은 산업은행은 정말로 지역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넘겨 봐 주세요.

벤처기업 숫자가요 이렇습니다. 한 3만 5000개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에 3분의 1 이상 있어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산업은행의 투자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회사들인데요, 이런 회사들 성공 사례도 많이 있으니까 이 점을 유념하셔서 지역 경제를 살리게 투자를 좀 과감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먼저입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강석훈** 위원님,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은행의 벤처 플랫폼이, 크게 중요한 플랫폼 중의 하나가 벤처 넥스트라운드 플랫폼이 있는데요. 넥스트라운드가 작년에는 대전 충북 경남 광주, 올해는 충남 경남 전북 등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최근의 활동이 부산·경남 지역에 좀 집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넥스트원을 설치했고 또 지금 저희가 부산시와 1100억 원 정도의 모펀드를 하기로 했고 경남과 700억 규모의 모펀드를 가지고 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활동들을 전국적으로 넓혀 나갈 거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보다 많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벤처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래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한국산업은행회장 강석훈** 예.

---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질의 보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 겸 당부 겸 하겠습니다.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이게 과거의 머지포인트 사태하고 유사하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걱정하시는……

○**위원장 윤한홍** 그래서 지금 관건은 그겁니다. 소비자나 소상공인 피해, 일단은 제일 먼저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리고 지금 법이 9월 15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관리 감독 잘하시기 바란다는 말씀 제가 드릴게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 공통적인 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추가조작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부터 삼부토건을 위시해서 계속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왜? 아까 금감원장이 테마주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어느 정권이든지 테마주가 있습니다. 앞에 문재인 정부 때 신재생에너지 테마주, 윤석열 정부 들어오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테

마주. 이건 한 예지 수도 없이 많아요, 심지어 정치인 테마주도 많아요.

지금 국회에 있는 유명한 정치인들 지지율 올라가면 테마주 나와 가지고 같이 확 올라갔다가 또 확 떨어졌다가, 이것 수도 없이 많이 보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을 금감원에서 좀 더 타이트하게 봐 달라 하는 말씀, 우리 위원님들 저는 그렇게 지적했다고 봅니다. 왜?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제 개인 생각이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식시장 여러분들 벤류업 한다고 하지요. 거기에 저는 장애가 될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익 보는 사람보다 손해 보는 사람이 더 많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도 더 문제는 정부 정책을 가지고 테마주가 나오면 정부가 오해를 받고 정부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정치인 테마주 같은 것도 그 정치인이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 급등락하잖아요. 그 정치인이 지지율 올라가면 주가가 폭등했다가 또 며칠 있으면 확 떨어졌다가. 지금 주식시장에 그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금융감독원장님, 어때요, 많이 있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아마 많은, 이익을 보는 사람보다 손해 보는 개미 투자자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금융감독기관에서, 우리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마 저는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하셨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냥 기존의 감시시스템만 믿고 그것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계속하는데 조금 안이한 답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때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위원장님이나 여야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가 100% 공감을 하고 어쨌든 저희가 지난 2년간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들도 강화한 것은 맞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겹혀 저희가 공감을 하고 최대한 역량을 집중해서 그 부분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별 건에 대해서 사실 제가 그걸 조사를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개별 건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런데 오늘 나온 적절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짐없이 다 한번 잘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렇지요. 챙겨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개별 위원님을 방문해서라도 설명을 해 드려야 돼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오늘 해당 질문하신 위원님들께는 저희 조사 담당 국장이나 임원이 방문해서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이상입니다.

오늘 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강명구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과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각 기관장님 그리고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정무위원회 직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일정이 잡히면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

### ○출석 위원(24인)

강명구 강민국 강준현 강훈식 권성동 김남근 김병기 김상훈 김용만 김재섭  
김현정 민병덕 박상혁 신장식 유동수 유영하 윤한홍 이강일 이인영 이정문  
이현승 조승래 천준호 한창민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황승기  
전문위원 최기도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  
사무처장 권대영  
기획조정관 유영준  
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금융정책국장 신진창  
금융산업국장 안창국  
자본시장국장 박민우  
구조개선정책관 김동환  
디지털금융정책관 전요섭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김기한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  
부원장 이준수  
부원장 함용일  
부원장 김미영

부원장보 김병칠  
부원장보 박충현  
부원장보 황선오  
기획조정국장 김성욱  
예금보험공사  
사장 유재훈  
상임이사 이병재  
기획조정부장 이상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  
기획조정실장 한덕규  
새출발인수운영처장 양근영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최준우  
상임이사 이규진  
기획조정실장 이영태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원목  
경영기획부본부장 김남수  
신용보증부본부장 정현호  
한국산업은행  
회장 강석훈  
기획관리부문장 이근환  
종합기획부장 고병규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김성태  
경영전략그룹장 김태형  
대외협력부장 김대희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이재연  
금융사업본부장 김진희  
기획조정부장 장지현